

[사설] 제 8 차 세계 華商대회에 거는 기대

(서울경제 2005.10.10)

[사설] 제 8 차 세계 華商대회에 거는 기대

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 8 차 세계화상(華商)대회는 한국이 그동안 화교에 배타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만큼 뜻이 깊고 기대가 크다.

화교 기업인 2,500 명과 국내 기업인 500 명 등 3,000 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에선 세계적인 경제권을 부상하고 있는 중화경제권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화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화교자본 유치 및 관광진흥 등 중화권과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주창으로 91 년부터 2 년 주기로 열리는 화상대회는 세계 화교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해 세계의 화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상경제올림픽이다.

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화경제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중화경제권과 교류 및 협력, 특히 3 조달러 안팎으로 추산되는 화교자본 유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우리의 외국자본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대회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. 중국과는 지리 및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다 중화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. 지난 7 일 고양시에 제 1 호 차이나타운

건설이 착공된 데 이어 인천 직할시에 차이나타운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까닭도 이번 화상대회 유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.

이번 대회에는 중국의 1,000 대 기업총수 가운데 70% 정도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대회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. 화상들에게 한국경제의 역동성 및 개방성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한국이 좋은 투자 대상임을 알리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.

이것은 한국이 화상자본에 대해 배타적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킴과 함께 한국이 중화 경제권의 좋은 파트너임을 알릴 수 있는 길이다. 4 차 화상대회를 유치했던 캐나다가 밴쿠버를 중심으로 화교자본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. 8 차 화상대회가 한국과 중화 경제권을 맺어주는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.

입력시간 : 2005/10/09 16:23

<http://economy.hankooki.com/lpage/opinion/200510/e2005100916205848010.htm>